

2022년  
서울기술연구원

# 디지털 환경에 따른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

2022.12.31.

강신영

**연구책임자** 강 신 영 (생활환경연구실 전임연구원) | 02-6912-0954 | sykang0610@sit.re.kr

**객원연구원** 백 원 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 | bookclub21@korea.com  
이 우 정 (책의학교 대표) | humanlibrary@naver.com  
서 도 원 (연세대학교 연구원) | malseroda@naver.com



■ 요약문 .....	1
I. 서울시민 독서행동 변화 및 실태 .....	2
II. 서울시 독서 정책 분석 .....	9
III. 서울시 독서 관련 공공서비스 개선점 도출 .....	12
IV. 서울시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 .....	21
■ 참고문헌 .....	27
■ Abstract .....	29
■ 붙임 .....	31

## 디지털 환경에 따른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

### [요약문]

- **디지털 환경에 따라 인쇄매체 기반 독서는 축소, 정보 습득 위한 매체 활용 다변화**
  - ▶ 시민 인식 독서 범주는 ‘책’ 기반이 우세하나, 젊은 연령층에서 ‘인터넷’ 기반 정보를 독서로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독서의 의미는 점차 다변화될 것임
  - ▶ 인터넷 기반 정보 활용이 확대됐음에도, 현재 시민이 도서관에서 주로 활용하는 디지털 서비스는 단편적임
  - ▶ 또한 도서관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시민 인지도 및 체감도가 낮아 도서관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디지털 서비스 개선점 도출 필요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독서 정보제공 서비스 개선점 도출**
  - ▶ (디지털 플랫폼) 도서관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소셜미디어 등으로 정보제공 중  
원인: ① 서울도서관·교육청도서관·자치구도서관 간 통합된 정보제공 창구 부재  
 ② 불편한 검색 알고리즘, 낮은 독서 정보 접근성  
개선점: ① 각 도서관 간 시스템 연동으로 이용률 제고 필요 ②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검색알고리즘 개선 등 시스템 개편 및 관심사에 맞는 독서 정보 노출 필요
  - ▶ (독서자료) 도서관은 일반자료,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등 자료 제공 중  
원인: ① 도서관 운영 주체별 상이한 자료 제공 ②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낮음  
개선점: ①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 ② 연령·학력·장애 여부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한 직관적 언어사용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 필요
- **서울시 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관 및 독서 생활화 정책(안) 제시**
  - ▶ 디지털 환경에 따른 시민 정보 매체 이용 변화와 정책 수요 고려, 도서관 제공 서비스 분석을 통한 도서관 및 독서 생활화 정책(안) 제시
  - ▶ 기존 독자의 독서환경 개선 및 비독자의 독서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요약 표]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 생활화 정책(안)

정책 구분	내용	
도서관 전략	표준화 및 통합	① 도서관 운영 규정의 표준화 추진      ② 도서관 운영 시스템 통합 ③ 통합된 정보제공 창구 운영      ④ 도서관 용어 통일(용어 가이드북 보급)
	자료이용 활성화	① 독서 정보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술 도입      ② 공동보존서고 임대 추진 ③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④ 스마트도서관(대출기) 확대
	정책적 한계 극복	정책협의체운영: 도서관 경영자·실무진 및 시민 위원회 구성을 통한 독서 정책 수립
독서 생활화 전략	① 도서관/독서 알림서비스 개선      ② 시민 우선순위 반영 독서 서비스 추진 ③ QR코드 활용한 모바일도서관 서비스 확장      ④ 독서-피트니스 연계 프로그램	

# I 서울시민 독서행동 변화 및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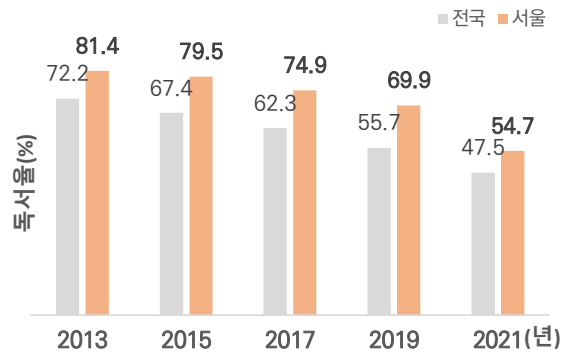
## 1-1. 독서 생활 변화 분석

### ■ 디지털 환경의 정착과 진화로 인해 전통적 개념의 독서율은 지속 하락 추세

- 서울시민 독서율은 '21년 기준 54.7%로 '13년 대비 약 33% 감소했으며, 꾸준히 감소추세 (그림 1)

※ 독서율: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중 한 가지 이상을 읽거나 들은 비율

- 반면 모바일 디바이스, 소셜미디어(SNS) 활용 확산으로 '주 여가 활동' 중 TV/모바일 콘텐츠 활용이 52.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독서는 1.2%로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조사

[그림 1] 전국 및 서울시 독서율 변화 (성인기준)

- 이에 서울시민 독서 행동 및 도서관 이용 분석을 통한 서울시 독서 정책 개선방안에 활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함 (표 1)

설문 표본은 서울시민 1,037명 대상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주제는 독서 생활, 매체와 정보이용, 공공도서관 이용자/비이용자, 독서 생활화 방안으로 분류하여 설문지를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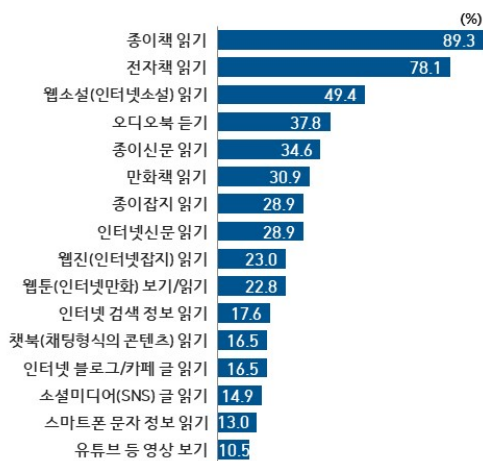
[표 1] 서울시민 대상 독서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표본 및 방법	(기간) 2022년 11월, (방법) 온라인 조사, (대상) 서울시민 1,037명	
조사 내용*	독서 생활	독서의 범주, 매체 이용 변화 정도(5년 전후 대비), 독서 빈도, 독서량 변화와 이유, 독서의 목적, 선호하는 독서 분야 등
	매체와 정보이용	정보 이용 매체, 모바일기기 활용 목적, 모바일기기 활용한 독서콘텐츠 이용
	공공도서관 이용자	공공도서관 방문 경험(1년 이내) 및 목적, 디지털 자료 활용 여부, 서울시 산하기관 디지털 정보 사용 여부, 디지털 자료 이용 빈도 및 만족도
	공공도서관 비이용자	공공도서관 비이용 이유, 디지털 자료 미활용 이유, 도서관 활용 의향 등
독서 생활화 방안	서울시 도서관 서비스/정책 인지도, 알림 서비스 동의 여부 및 받고 싶은 알림 서비스. 서울시 필요 독서 정책 등	
응답자 특성	성별	(남성) 52.2%, 541명 (여성) 47.8%, 496명
	연령	(10대) 4.9%, 51명 (20대) 10.0%, 104명 (30대) 24.6%, 255명 (40대) 27.3%, 283명 (50대) 23.5%, 244명 (60대) 8.1%, 84명 (70대 이상) 1.5%, 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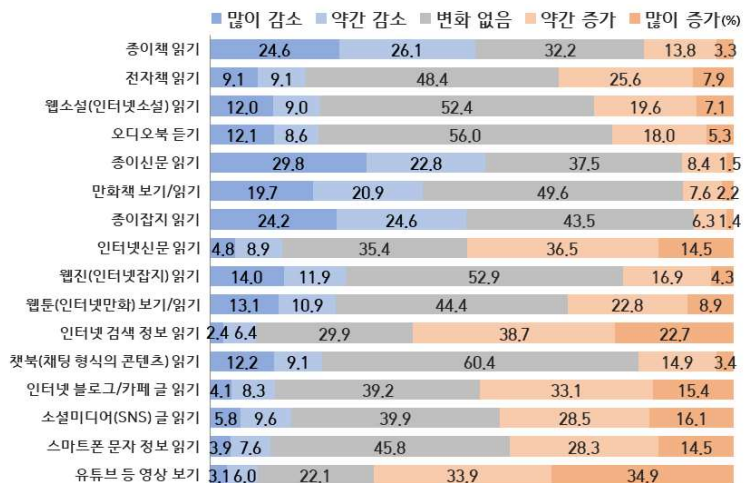
\* 조사 내용 구성: 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독서실태 조사', 통계청 '사회조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등 설문 항목 분석을 통해 표준화된 설문지로 구조화함

## ■ 시민이 생각하는 독서의 범주 및 매체별 이용 변화

- ‘국민 독서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독서의 정의는 일반도서(종이책, 전자책) 읽기와 오디오북 듣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디지털 문화에 확산에 따라 독서의 범주를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
- 서울시민 대상 독서범주 조사 결과, 보편적 독서개념인 종이책과 전자책 읽기는 각각 89.3%, 78.1%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읽기 정보를 독서로 인식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림 2 (a))  
 하지만 10대~20대 연령에서 인터넷, SNS 등의 콘텐츠를 읽거나 보는 것을 독서 활동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타 연령에 비해 높게 나타나서 연령에 따른 독서 범주 인식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표 2)
- 매체별 이용 변화의 경우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전통적인 독서 개념인 인쇄매체 기반의 ‘종이책/종이신문/종이잡지’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전자책/오디오북은 상대적으로 활용이 증가함 (그림 2 (b))  
 또한 유튜브 등 영상 보기가 가장 많이 증가(68.8%)했으며, 인터넷신문/검색정보/블로그·카페 등 인터넷 기반 정보 이용이 전반적으로 인쇄매체 기반 정보보다 많이 활용됨
- 이에 따라 10대~30대 젊은 연령층에서 ‘인터넷 기반 정보’를 독서로 생각하는 범위가 높은 연령층에 비해 수용적이고, 매체별 이용도 종이 콘텐츠를 대체하고 있는 시점에서 독서의 정의는 점차 다변화될 것임



(a) 서울시민이 생각하는 독서의 범주 (복수응답)



(b) 매체별 이용 변화 (5년 전후 대비)

[그림 2] 독서의 범주 및 매체별 이용 변화

[표 2] 서울시민 연령별 독서로 생각하는 범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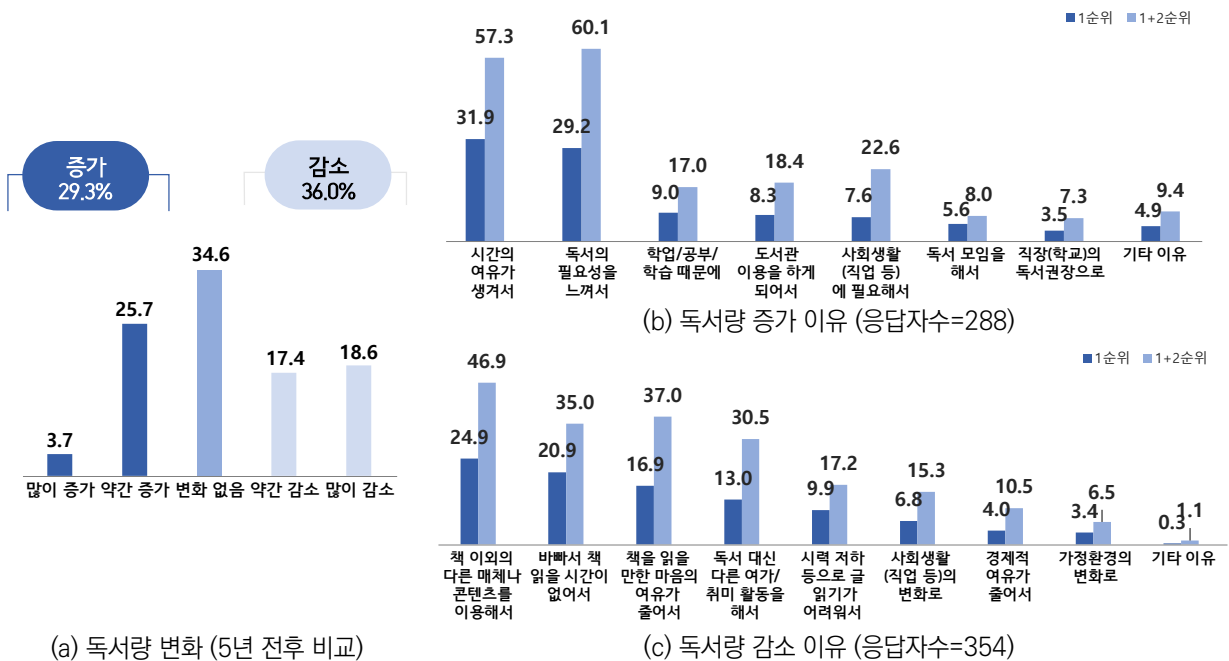
구분	종이책	전자책	웹소설	오디오북	종이신문	만화책	종이잡지	인터넷신문
10대	88.2	84.3	62.7	39.2	51.0	49.0	33.3	49.0
20대	82.7	76.0	47.1	32.7	36.5	33.7	29.8	30.8
30대	90.2	78.8	47.1	39.6	36.5	30.6	28.2	30.6
40대	88.0	79.9	48.4	39.6	35.7	33.6	29.3	29.3
50대	92.2	77.0	51.6	39.3	29.9	27.5	27.5	24.2
60대	89.3	77.4	50.0	34.5	31.0	21.4	31.0	25.0
70대 이상	100.0	50.0	37.5	0.0	12.5	12.5	25.0	12.5

구분	웹진	웹툰	인터넷 검색정보	챗북	블로그/ 카페 등	SNS 정보	스마트폰 문자정보	유튜브 등 동영상
10대	31.4	37.3	25.5	29.4	31.4	29.4	25.5	19.6
20대	30.8	24.0	14.4	17.3	19.2	20.2	14.4	13.5
30대	23.1	23.9	16.9	16.9	15.7	12.5	13.3	10.2
40대	23.7	23.3	18.7	16.6	18.0	14.5	12.0	8.8
50대	19.7	20.1	17.2	14.3	12.7	13.5	10.7	10.2
60대	17.9	17.9	20.2	14.3	14.3	14.3	14.3	9.5
70대 이상	6.3	6.3	0.0	6.3	6.3	6.3	6.3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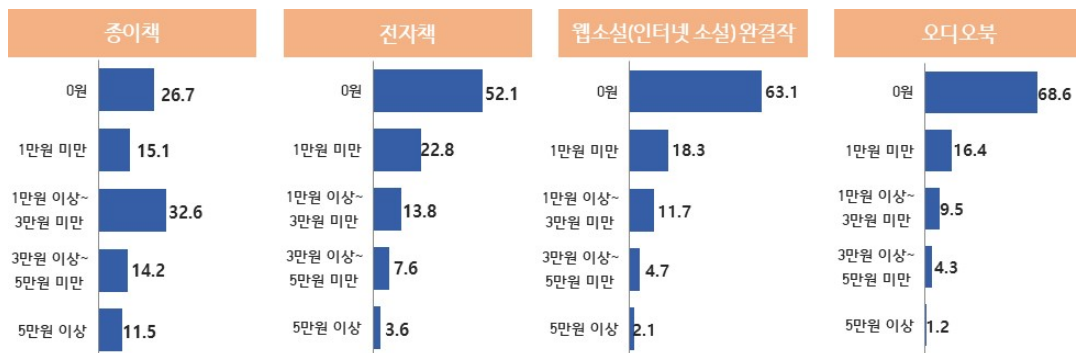
■ 서울시민 독서 실태 및 변화 분석

- 독서량 변화는 ‘증가’ 29.3%, ‘보통’ 34.6%, ‘감소’ 36.0%로, 특히 독서가 ‘많이 증가’한 비율보다, ‘많이 감소’한 비율이 더 높았음 (그림 3 (a))  
 증가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31.9%로 가장 높았음. 감소 이유로는 ‘책 이외 콘텐츠 이용’ 24.9%, ‘시간적 여유가 없음’ 20.9%로 높았음 (그림 3 (b), (c))
- 독서량이 감소한 경우 독서 대신 하는 활동으로는 ‘다른매체이용(TV, 동영상, 영화 등)’이 42.4%, ‘운동’ 18.4%, ‘취미활동’ 14.4%, ‘경제활동’ 13.6%로 독서 대신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한 타 활동을 많이 함



[그림 3] 독서량 변화 및 이유

- 이를 통해 아직까지 독서의 범주를 종이책/전자책 등 ‘책 기반 정보 습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대신,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인터넷 정보 습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지표상의 독서율 감소로 이어짐
- 독서자료 구입을 위한 비용 지출로는 종이책을 제외한 전자책, 웹소설, 오디오북에서 ‘0원 지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종이책’의 경우 1만원~3만원이 32.6%로 가장 높아, 디지털콘텐츠 특성상 무상 또는 구독 방식 등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디지털 매체 정보에 비용을 투자하는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보임 (그림 4)
- 결과적으로, 전통적 개념의 독서를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고 디지털콘텐츠에 비해 ‘자료 구입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음. 하지만 현대 사회 정보는 ‘빠른 트렌드 변화, 방대한 정보량, 습득 용이성’ 등 특성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정통적 개념의 독서 활용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독서의 정의’가 인터넷 기반 콘텐츠까지 점차 확대되어 독서율 보정 혹은 ‘디지털 독서율(가칭)’ 등이 포함된다면, 실질적 독서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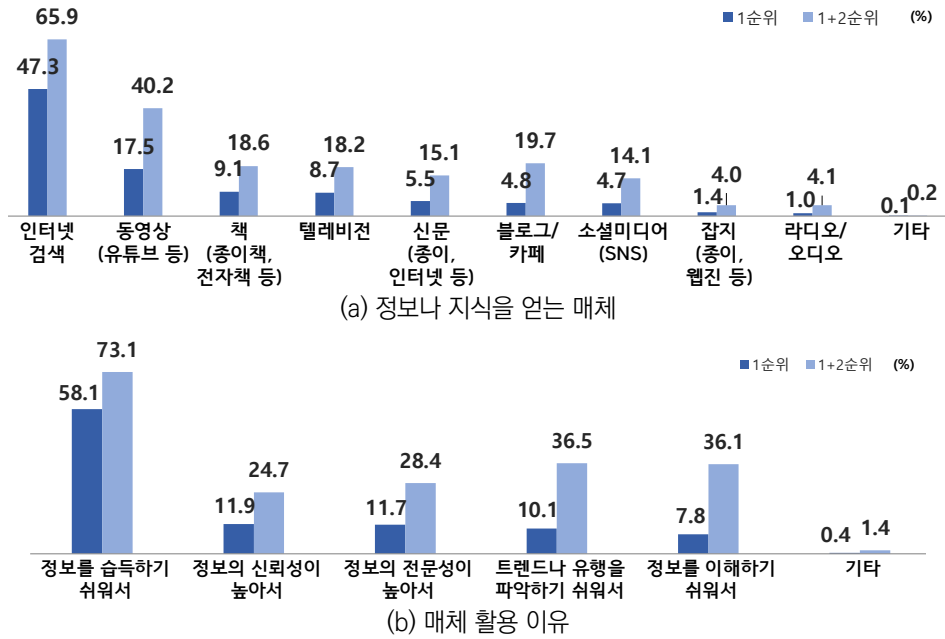


[그림 4] 독서자료 콘텐츠 투자 금액

## 1-2. 디지털 환경에 따른 정보 매체 이용 분석

### ■ 서울시민의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 및 이용 요인

- 디지털콘텐츠의 확산으로, 정보를 얻는 매체는 인터넷 검색(47.3%)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동영상(17.5%), 책(9.1%) 순으로 정보를 얻고 있음 (그림 5 (a)). 특히 인터넷 검색은 20대~60대까지 대부분 연령층에서 절반 가까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10대의 경우 인터넷 검색이 37.3%인 것에 반해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하는 비율이 15.7%로 타 연령층 대비 2배~3배 가량 높음
- 위의 활용 매체에서 주로 정보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1순위 응답 기준 ‘정보를 습득하기 쉬워서’가 58.1%로 가장 높았고, 1+2순위 응답 기준 ‘트렌드 파악이 쉬워서’, ‘정보를 이해하기 쉬워서’ 순임 (그림 5 (b))



[그림 5] 서울시민 정보 습득 경로 및 매체 활용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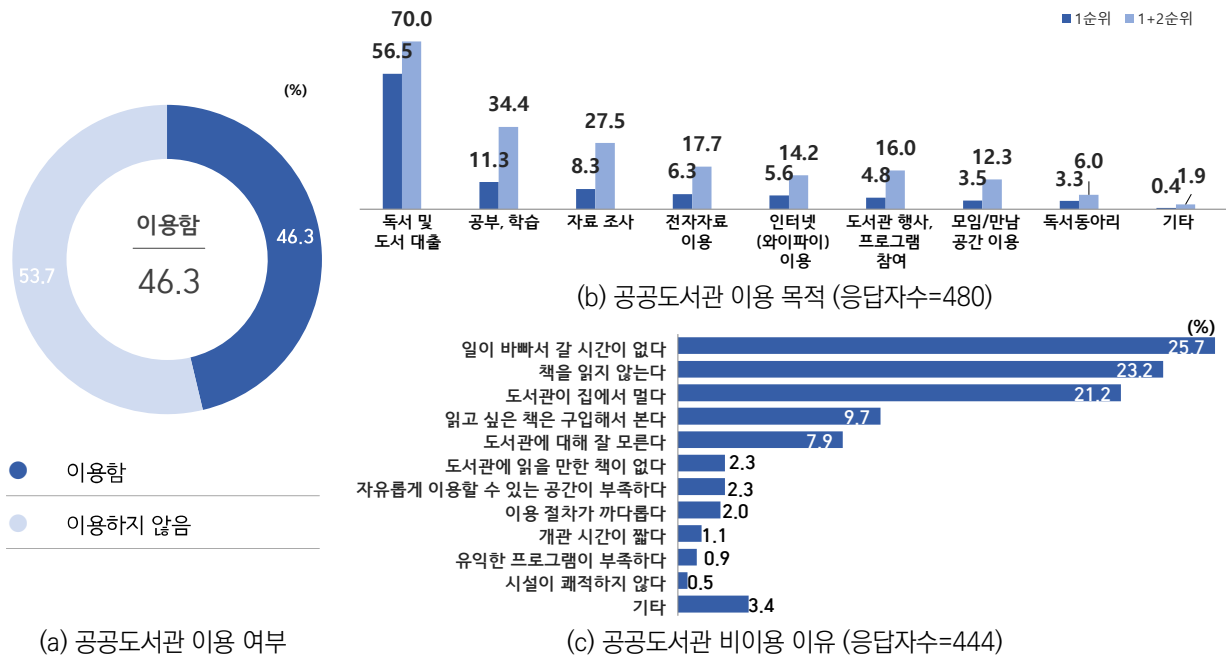
## ■ 모바일기기(스마트폰)를 활용한 책 정보 이용 현황

- 스마트폰을 활용한 활동으로는 '각종 정보 검색'이 70.3%로 가장 높았으며, 커뮤니케이션 활동(SNS, 메신저 등), 금융거래, 온라인쇼핑, 콘텐츠 이용이 약 60%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
-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책 관련 활동을 하는 경우 '인터넷서점' 활용 35.4%, '블로그/ 카페 책 정보' 33.0%, '책 관련 영상 시청'이 31.3% 순으로 높고,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19.6%)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 1-3. 서울시 제공 독서환경 이용 실태

### ■ 서울시민 공공도서관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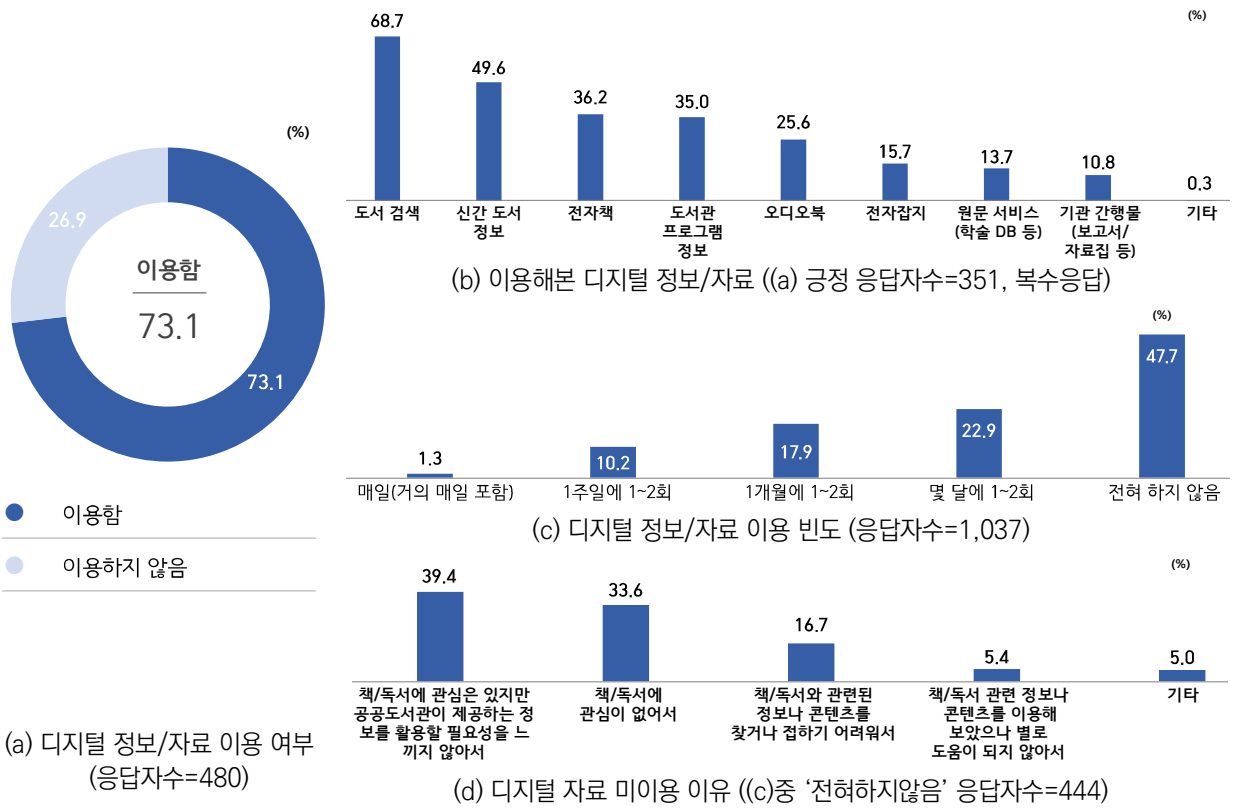
- 서울시 도서관은 '22년 기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을 포함하여 총 1,485곳의 도서관이 존재하며 공공도서관 208곳(14%), 작은도서관 1,122곳(75.6%)이 대부분을 차지함. 이 중 정보·독서·문화·학습 활동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독서 서비스 이용 및 제공 실태를 조사함
- 공공도서관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하지 않는 비율(53.7%)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그림 6 (a)), 60대 이상의 고령자일수록 도서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함
- 도서관 이용 목적으로는 도서관 주 기능인 독서 및 도서 대출(56.5%), 학습(11.3%)이 대부분이며, 도서관 비이용 이유로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25.7%)이 가장 높았고, 책을 읽지 않음(23.2%), 도서관 접근성이 떨어짐(21.2%) 순임



[그림 6] 서울시 공공도서관 이용 여부 및 이유

## ■ 서울시 공공도서관 및 산하기관 디지털 정보 및 자료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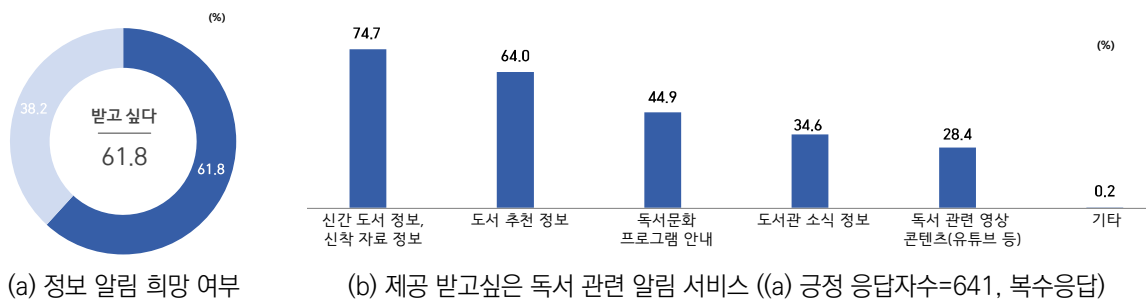
- 공공도서관 이용 시민(응답자수=480) 중, 디지털 정보 및 자료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73.1% 활용으로 응답 (그림 7 (a)). 이 중 10대는 대부분 이용(96%)한다고 응답하였고, 20대~40대 젊은 층에서도 평균 약 74%로 활용도가 높음
- 하지만 디지털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 ‘몇 달에 1~2회’가 22.9%로 이용 빈도수가 낮고,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47.7%) ‘활용 필요성 못느낌’ 39.4%, ‘책에 무관심’ 33.6%, ‘책 관련 콘텐츠 접근 어려움’ 16.7% 순임 (그림 7 (c), (d))
- 결과적으로 공공도서관 제공 디지털 자료를 대다수 이용했다 하더라도 ‘도서검색’ 등 단편적 자료 검색이 대부분이며, 디지털 제공 정보에 대해 관심 자체가 낮거나 접근성이 낮은 등의 이유로 정보 활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산하기관의 디지털 정보/자료의 이용 정도는 24.5%(응답자수=254)로 낮은편이고 대부분이 이용 경험이 없는 것(75.5%)으로 조사됨  
이용 정보는 공공도서관과 유사하게 ‘도서검색’ 51.6%, ‘프로그램 정보’ 47.6% 순으로 활용하고 있었음(복수응답 허용)
- 서울시 공공도서관 제공 정보를 활용한 시민 대상 만족도의 경우 ‘만족’ 59.0%, ‘보통’ 32.7%, ‘불만족’ 8.3%로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  
만족하는 경우 ‘정보/자료 검색 기능이 편리함’이 42.8%로 가장 많았고, 불만족의 경우 1+2순위 응답 기준으로 ‘정보 접근성 개선(통합뷰어 등)’이 53.3%, ‘정보/자료의 양적 확대’ 44.4%, ‘정보/자료의 검색기능 개선(통합검색 등)’ 35.6% 순임



[그림 7] 서울시 공공도서관 디지털 정보/자료 이용 여부 및 이유

## ■ 서울시 도서관 제공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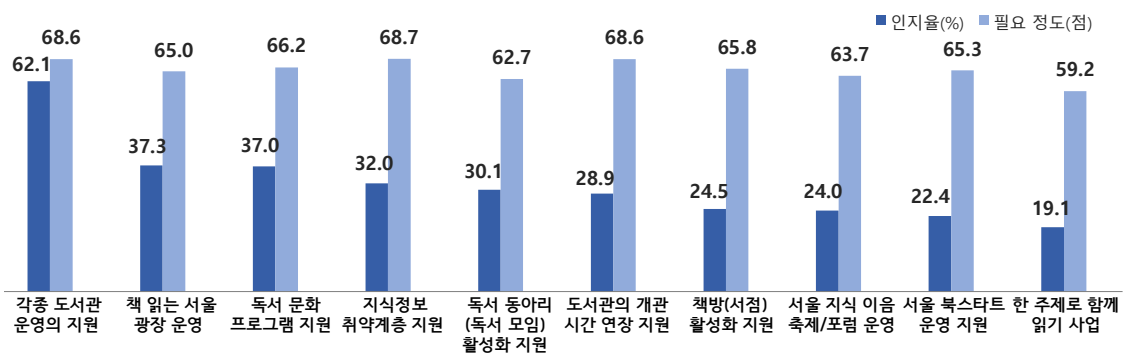
- 서울시가 제공하는 도서관/독서 정보 알림 서비스 이용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받고싶다' 61.8%(응답자수=641), '받고싶지 않다' 38.2%로 나타남 (그림 8) 알림을 받고 싶은 방식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채널' 44.0%, '문자(SMS)' 29.0%, 이메일 18.6%, 'SNS' 6.6%, '홈페이지' 1.9%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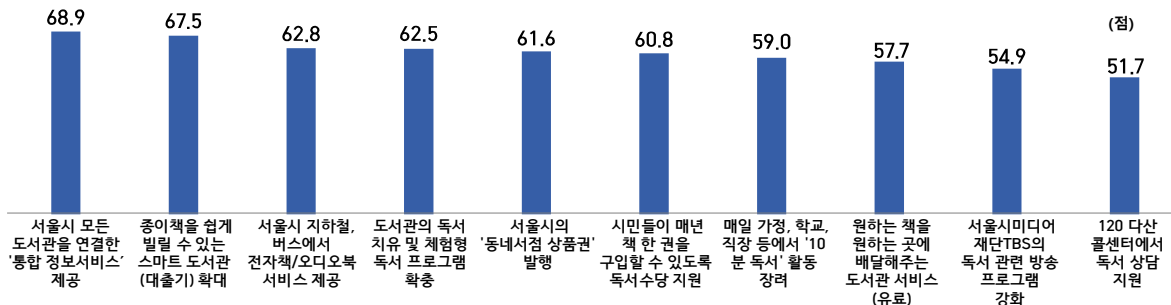
[그림 8] 공공도서관 알림 희망 서비스 관련 설문 결과

- 서울도서관에서 시행하는 정책 인지율에 대해서는 '각종 도서관 운영 정보' 62.1%, '책 읽는 서울광장' 37.3%, '독서 문화 프로그램' 37.0%,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32.0% 순으로 응답함 (그림 9 (a))

- 도서관 시행 중인 정책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점수의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특히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 68.7%,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각종 도서관 운영의 지원' 68.6%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 (그림 9 (a))
- 이에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과 같이 실제 시행하고 있지만 정책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들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 확충이 필요함
- 추가로 도서관에서 현재 시행이 되지 않거나, 확대/강화가 필요한 정책을 10가지로 선정함. 결과적으로 '서울시 도서관을 연결한 통합서비스 제공'이 68.9점으로 가장 수요가 높았으며, 이외 '스마트도서관 확대' 67.5점, '대중교통 전자책/오디오북 서비스 제공' 62.8점 순으로 정책 수요가 높음 (그림 9 (b))



(a) 서울도서관 시행 중인 정책 인지도 (복수응답) 및 필요 정도 (100점 평균)



(b) 서울시 도서관 향후 정책 필요 정도 (100점 평균)

[그림 9] 서울시 도서관 정책 인지도 및 향후 정책 필요 정도

## II 서울시 독서 정책 분석

### 2-1. 서울시 독서 정책 및 프로그램 현황

- 서울시는 「독서문화진흥법」,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추진
- '22년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의 네 가지 전략은 ① 사회적 독서 활성화 ②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 ③ 포용적 독서복지 실천 ④ 미래 독서생태 조성으로 구성됨. 각 전략은 표

3과 같이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있으며 서울도서관, 교육청도서관, 자치구도서관이 각 해당 과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

**[표 3] 서울시 2022년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전략 및 과제	소과제 건(수)					예산(천원)
	연구 조사	학술	강연	행사	기타	
<b>전략 1. 사회적 독서 활성화</b>		2	11	162	9	32,241,828
1-1. 함께 하는 독서공동체 확산 지원		2	11	162	9	4,320,928
1-2. 일상에서 책 읽는 환경조성	1	1	1	27	32	27,409,014
1-3. 나와 우리가 만드는 독서문화 정착		1	5	78		511,886
<b>전략 2. 독서의 가치 공유 확산</b>		3	37	106	9	1,541,841
2-1. 사람중심 독서로 공감능력 제고		3	24	17	3	1,194,033
2-2. 50+(신중년) 참여독서 실현			12	37	3	245,024
2-3. 대중매체 연계 독서문화 확산			1	14	2	51,094
2-4. 독서 나눔문화 활성화				38	1	51,690
<b>전략 3. 포용적 독서복지 실현</b>		1	9	154	39	8,664,597
3-1. 생애주기별 맞춤독서 강화			8	91	5	2,794,542
3-2. 학교 독서 생활화			1	10		4,949,100
3-3 포용적 독서복지체계 구축		1		53	34	920,955
<b>전략 4. 미래 독서생태계 조성</b>	3	5		2	14	1,248,700
4-1. 독서 정책기반 조성		4			1	94,000
4-2. 디지털 독서 확산 기반 구축				2	13	1,154,700
4-3. 독서가치 및 독자개발 연구 강화	3	1				15,000
전체 합계	3	11	57	424	71	43,711,966

\* 출처: 서울특별시, 2022,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은 현재 2차 계획 추진 중으로, 3대 추진 방향 및 8대 추진전략을 목표로 수행하고 있음

※ 8대 추진과제: 공공도서관 질적 확충/이용환경 개선/제도 정비, 독서소외인 서비스 강화, 장서 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시민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서울시 공공도서관에서는 독서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 대표 도서관인 서울도서관에서는 매년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을 통해 독서문화를 촉진하고 있음. 각 교육청과 자치구도서관 역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북큐레이션, 독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 (표 4)

**[표 4] 서울시 제공 독서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내용
북큐레이션	<p>시민의 도서 선택을 돕고 양서를 추천하기 위한 서비스</p> <p>[서울도서관] ‘책피는 서울도서관’으로 매달 서비스 제공, ‘책 읽는 서울광장 북큐레이션 부스’ 등 대면 도서 전시를 통한 서비스 제공, ‘책 읽는 밤 잠들기 전 5분 독서’ 등 유튜브를 통한 자체 콘텐츠 제작</p> <p>[교육청도서관] 각 도서관별 ‘사서 추천도서’, ‘북큐레이션’, ‘월별 추천자료’ 등을 제공</p> <p>디지털 환경에 맞춰 유튜브 영상 제작, SNS 홍보를 진행</p> <p>[자치구도서관] ‘사서 추천도서’, ‘이 달의 추천도서’, ‘북큐레이션’ 이름으로 서비스 제공</p> <p>홈페이지나 도서관 SNS를 통해 공지</p>

**[표 4] 서울시 제공 독서 프로그램 예시(계속)**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내용
교육	<p>교육 대상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 어르신 대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임. 또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금융에 대한 내용이 꾸준히 제공됨</p> <p>[서울도서관] ‘그림책으로 나만의 게임 만들기 코딩 교실’, ‘나’라는 브랜드, 나만의 전자책 쓰기’ 강좌를 통해 전자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개인의 글쓰기 능력을 높이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p> <p>[교육청도서관] 독서 교실 등 독서교육을 필두로 한지공예(정독 도서관), 3D 프린트(구로도서관), 연극(노원평생학습관), 역사교실(서대문도서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p>
문화	<p>[서울도서관]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동네 터줏대감 서점’ 영상을 만들고 지역 서점 방문 캠페인, 영화 상영회, ‘독서아카데미 영화로 책 읽기’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진행</p> <p>[교육청도서관] 책소풍 가는 날(구로 도서관), 럭키북박스(서대문도서관), 온 가족 책 잔치(정독도서관) 등 각 도서관별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기획</p> <p>[자치구도서관] 서리풀책문화축제(서초구립도서관), 책모꼬지 북페스티벌(성북구립도서관), 마포 동네 책축제(마포중앙도서관) 등 지역 내 독서문화 축제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다수 기획됨</p>

## 2-2. 서울시 독서 정책 및 프로그램 분석

### ■ 독서 정책 분석: 디지털 매체 활용 및 독서 생활화 프로그램 증진 필요

- 시민의 독서 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독서 생활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읽고 있는 독자를 위한 정책 못지않게 전혀 읽지 않거나 간헐적으로밖에 읽지 않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유도하는 온라인 기반 참여 프로그램이나 공공 독서 촉진 캠페인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독서 생활화 캠페인 추진을 위한 전략과 예산을 수립하여 비독자의 독서 동기 유발을 도모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 또한 생애주기별 독서 정책에서 영유아(서울형 북스타트 사업) 등을 위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고령자 대상 독서 향유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고,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이주민 및 외국인 대상 독서 프로그램 등 환경 변화에 조응하는 사업 추진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 독서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정리된 정보제공 필요

- 서울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들이 각 도서관별 양식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기에 시민들이 알기 어렵고 정보 피로도가 큼. 이에 어떤 대상에게 어떤 내용을 제공하려는 프로그램인지 각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분류, 검색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함
- 또한 시민 개별 관심사에 맞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 제공 방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는 도서관 홈페이지 이용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

### III 서울시 독서 관련 공공서비스 개선점 도출

#### 3-1. 공공도서관 디지털 플랫폼 제공 현황 및 개선점

##### ■ 홈페이지

-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총 195개로('21년 기준) 도서관별 홈페이지를 운영함. 일반적으로 25개 자치구별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구 소속 개별 도서관 홈페이지를 연결하며, 교육청도서관도 통합 홈페이지에서 22개 개별 도서관의 연결 링크를 제공함 (표 5)
- 서울시 도서관 홈페이지들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사용 확대에 따라 반응형 웹서비스를 제공하여, 접속하는 기기에 따라 화면 구성을 최적화하여 제공함  
※ 반응형웹서비스: 다양한 기기의 창 화면 크기에 맞춰 렌더링하여 홈페이지 디자인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음
- 서울시 공공도서관 외 서울시 산하기관에서도 각 기관 특성에 맞는 독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붙임 1)

**[표 5]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도서관 현황 (2021년 기준)**

자치구	대표 도서관명	홈페이지	설립 주체	도서관 수
	서울도서관	<a href="http://lib.seoul.go.kr">http://lib.seoul.go.kr</a>	지자체	1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	<a href="https://lib.se.go.kr">https://lib.se.go.kr</a>	교육청	22
강남구	강남구립도서관	<a href="https://library.gangnam.go.kr">https://library.gangnam.go.kr</a>	지자체	12
강동구	강동구립도서관	<a href="https://www.gdlibrary.or.kr">https://www.gdlibrary.or.kr</a>	지자체	6
	명성교회도서관	<a href="http://www.mslib.or.kr">http://www.mslib.or.kr</a>	사립	1
강북구	강북구립도서관	<a href="https://www.gbllib.or.kr">https://www.gbllib.or.kr</a>	지자체	7
강서구	강서구통합도서관	<a href="https://lib.gangseo.seoul.kr">https://lib.gangseo.seoul.kr</a>	지자체	8
관악구	관악구 통합도서관	<a href="http://lib.gwanak.go.kr">http://lib.gwanak.go.kr</a>	지자체	5
광진구	광진구 공공도서관	<a href="https://gwangjinlib.seoul.kr">https://gwangjinlib.seoul.kr</a>	지자체	5
구로구	구로구 통합도서관	<a href="https://lib.guro.go.kr">https://lib.guro.go.kr</a>	지자체	9
금천구	금천구립도서관	<a href="http://geumcheonlib.seoul.kr">http://geumcheonlib.seoul.kr</a>	지자체	4
노원구	노원구립도서관	<a href="http://www.nowonlib.kr">http://www.nowonlib.kr</a>	지자체	11
도봉구	도봉구 통합도서관	<a href="http://www.unilib.dobong.kr">http://www.unilib.dobong.kr</a>	지자체	7
동대문구	동대문 구립도서관	<a href="https://www.l4d.or.kr">https://www.l4d.or.kr</a>	지자체	5
동작구	동작구 통합도서관	<a href="http://lib.dongjak.go.kr">http://lib.dongjak.go.kr</a>	지자체	6
마포구	마포구립도서관	<a href="https://mplib.mapo.go.kr">https://mplib.mapo.go.kr</a>	지자체	4
서대문구	서대문구립도서관	<a href="http://lib.sdm.or.kr">http://lib.sdm.or.kr</a>	지자체	3
서초구	서초구립도서관	<a href="https://public.seocholib.or.kr">https://public.seocholib.or.kr</a>	지자체	8
성동구	성동구 통합도서관	<a href="https://www.splib.or.kr">https://www.splib.or.kr</a>	지자체	7
성북구	성북구립도서관	<a href="https://www.splib.seoul.kr">https://www.splib.seoul.kr</a>	지자체	13
	송파구통합도서관	<a href="http://www.splib.or.kr">http://www.splib.or.kr</a>	지자체	9
	가락몰도서관 지생터올림픽공원도서관	<a href="https://www.splib.or.kr/spalib">https://www.splib.or.kr/spalib</a> <a href="https://www.ksponco.or.kr/lib">https://www.ksponco.or.kr/lib</a>	사립	2
양천구	양천구통합도서관	<a href="https://lib.yangcheon.or.kr">https://lib.yangcheon.or.kr</a>	지자체	9
영등포구	영등포구립도서관	<a href="https://www.ydplib.or.kr">https://www.ydplib.or.kr</a>	지자체	4
용산구	용산구립도서관	<a href="https://www.yslibrary.or.kr">https://www.yslibrary.or.kr</a>	지자체	2
은평구	은평구공공도서관	<a href="https://lib.eplib.or.kr">https://lib.eplib.or.kr</a>	지자체	8

**[표 5] 서울시 자치구별 공공도서관 현황 (2021년 기준)(계속)**

자치구	대표 도서관명	홈페이지	설립 주체	도서관수
종로구	종로구립도서관	https://lib.jongno.go.kr	지자체	3
	4.19혁명기념 도서관	http://library.419revolution.org	사립	1
중구	중구구립도서관	http://www.junggulib.or.kr	지자체	7
	한국학생도서관	http://ksplibrary.co.kr	사립	1
중랑구	중랑구립도서관	http://www.jungnanglib.seoul.kr	지자체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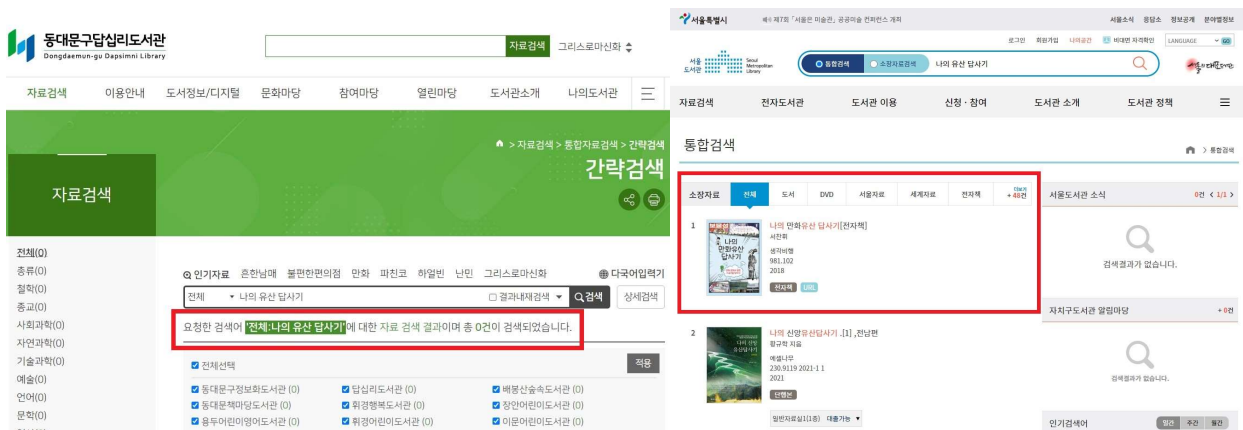
\*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2, 공공도서관 통계데이터 (https://www.libsta.go.kr)

### 개선점 ① 통합되지 않은 도서관 홈페이지

- 서울시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관 자료 통합검색을 할 수 있으나, 서울도서관, 자치구도서관, 교육청도서관이 각자 다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
- 교육청도서관이나 일부 자치구도서관은 서로 연동되어있으나, 타 자치구 등 도서관은 별도의 가입 절차가 필요함. 이에 따라 일반시민의 경우 도서관 기능 및 부처에 따른 도서관 분류에 따라 이용이 불편하며 일종의 정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산하기관 독서 관련 정보 경우에도 서울도서관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하나, 각 기관 도서 정보제공 홈페이지는 연계되어있지 않아 기관별 홈페이지의 유입량은 적은 현실임

### 개선점 ② 불편한 검색 알고리즘

- 일부 자치구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도서 정보 검색 시, 정확한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으면 검색이 어려움. 예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목을 “나의 유산 답사기”로 검색할 경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음 (그림 10). 반면 서울도서관이나 교육청도서관 등 경우에는, 검색 알고리즘이 불완전한 제목까지 포괄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자료나 서비스 정보를 찾고자하는 경우, 서울도서관의 경우 “통합검색”과 “자료검색”을 분리해 놓은 반면, 자치구도서관은 자료 검색만 존재하는 경우도 많아 원하는 서비스 검색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그림 10] 도서관 검색 알고리즘 (좌)자치구의 불완전 검색 알고리즘 (우)서울도서관 검색 알고리즘**

### 개선점 ③ 도서관 사용 용어의 혼재

- 정보제공 시 스마트도서관, 전자도서관, 지식문화콘텐츠, 온라인콘텐츠, 정보큐레이션 등 다양한 외래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에 혼동을 줄 수 있음
- 또한 같은 기능임에도 각 도서관끼리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관련 정보를 바로 찾기 힘들  
 (1) 자치구 내 도서관 간 상호대차 서비스 문구에 대해 서대문구는 ‘책두레서비스’, 마포구는 ‘책마중서비스’, 광진구는 ‘관내 상호대차’를 사용하는 등 용어 통일성이 없음  
 (2)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를 위한 택배 서비스 역시 서대문구는 ‘책두레서비스’, 마포구는 ‘책마중-북실북실’, 서초구는 ‘희망날개북서비스’ 등 개별적 명칭을 사용함

### ■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

- 서울시 공공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은 서울도서관, 교육청도서관, 10개 자치구 자체 애플리케이션, 리브로피아 등 총 13개로 구성되어있어 각각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도서 및 도서관 정보를 제공함 (표 6)
- 서울도서관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며, 애플리케이션 내 타 자치구 통합검색은 가능하지만 타 자치구와 시스템적으로 연동이 되어있지 않음. 교육청도서관은 자체 전자도서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리브로피아와 협약을 맺어 정보를 제공함. 일부 자치구(관악구, 성동구 등)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그 외 자치구(강남구, 마포구 등)는 리브로피아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고 있음

[표 6] 서울시 공공도서관 애플리케이션 현황 중 일부

자치구	도서관명	애플리케이션 종류			
		교육청도서관 앱	자체 도서관 앱	리브로피아	정보제공 없음
	서울도서관		0		
관악구	관악중앙도서관		0	0	
	조원도서관		0	0	
마포구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0		0	
	마포중앙도서관			0	
	마포소금나루도서관			0	
성동구	성동구립도서관		0		
	성동구립청계도서관				0
	성동구립금호도서관		0		

\* 출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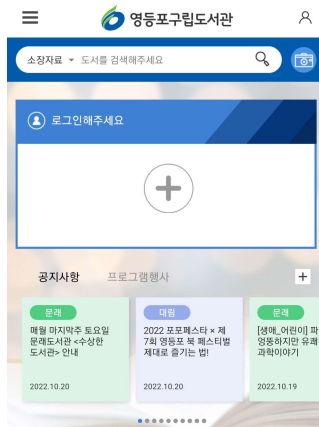
### 개선점 ① 통합되지 않은 도서관 애플리케이션

- 서울시 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도서관 13개 앱은 각각 다른 시스템 운영으로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따라서 서울시 도서관 애플리케이션 검색 시 거주지 근처 도서관 앱 접근이 어려울 수 있음 (그림 11)

※ 예를 들어 구로구 ‘하늘도서관’ 근처 시민이 ‘구로구 도서관’을 검색하면 상단에 ‘서울도서관 공식앱’이 노출됨



(a) 각종 도서관 애플리케이션



(b) 영등포구 자체 애플리케이션



(c) 플레이스토어 '구로구 도서관' 검색 결과

\* 출처: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그림 11] 서울시 공공도서관 애플리케이션 현황

### 개선점 ② 타 서비스(기본 정보 등)와 연계되지 않는 시스템

- 자치구 자체 앱이나, 리브로피아 협약이 된 경우에도 서비스 질적 차이로 인해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한 경우가 존재함. 또한 리브로피아의 경우 도서관별 검색이 되기 때문에, 검색한 책이 대출 불가일 때 해당 도서관에 직접 재검색 필요
- 또한 자치구도서관 앱이 있는 경우 해당 구역 내 타 도서관 검색은 가능하나, 교육청도서관 등과는 분리되어있어,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 정보에 한계가 있음  
 ※ 용인시 도서관 앱의 경우, 용인시에 있는 모든 도서 검색이 가능하며, 통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함

### ■ 소셜미디어(Social Media)

- 서울도서관, 교육청도서관, 자치구도서관은 각각 별개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음. 특히 교육청, 자치구도서관은 통합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치구별로도 다른 계정을 운영함(표 7)
- 강북구, 강동구, 구로구 등 자치구 차원의 통합 소셜미디어가 없는 경우, 개별 도서관에서 각각 도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당 구청, 문화재단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표 7] 서울시 공공도서관 자치구별 소셜미디어 현황 중 일부

지역	도서관 소속	도서관명	소셜미디어						
			카카오 채널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서울 통합	자치구	서울도서관				0	0		0
	교육청	서울 교육청도서관	0		0				
강동구	자치구	강동구립도서관							
	교육청	교육청 강동도서관				0	0		0
		고덕평생학습관			0	0			0

[표 7] 서울시 공공도서관 자치구별 소셜미디어 현황 중 일부(계속)

지역	도서관 소속	도서관명	소셜미디어						
			카카오 채널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카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구로구	자치구	구로통합도서관							
	교육청	교육청 구로도서관			0	0	0		0
마포구	자치구	마포구립도서관							
	교육청	마포평생학습관					0		0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0			
서대문구	자치구	서대문구립도서관	0				0		0
	교육청	교육청 서대문도서관					0	0	0
양천구	자치구	양천구통합도서관							
	교육청	양천 교육청도서관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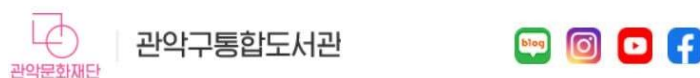
\* 출처: 각 도서관 홈페이지

### 개선점 ① 이용률이 저조한 도서관 소셜미디어

- 각 도서관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지만, 자치구도서관은 카카오톡 채널이 없는 지역이 다수이고 채널 분산으로 접근성이 저조함  
 ※ 예로 고양시 인구는 100만여 명, 서울시 노원구 인구는 50만인데 고양시도서관센터 채널 친구 수는 22,000여 명, 노원구립도서관 채널 친구 수는 5,000여 명임  
 ※ 고양시도서관센터는 통합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매달 도서 정보를 취합하여 알려주고 있음
- 교육청도서관 또한 대부분 수백 명 단위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지만, 운영하는 SNS의 통합 창구가 없고 개별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상황임
- SNS 특성상 시민이 직접 플랫폼을 접속해서 정보를 얻어야 함에 따라, 정보 접근성을 높이려면 통합된 소셜미디어 운영으로 매달 도서 정보를 취합하는 창구가 필요함

### 개선점 ② 독서정보의 접근성 향상

- 서울시 도서관에서는 각각 도서 정보, 행사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별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으면 정보를 구하기가 어려움
- 시민이 원하는 경우도, 도서관 진행 프로그램이나 독서 정보를 푸쉬 알림이나 이메일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나,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게 되어있음
- 또한 자체 SNS를 통해 독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SNS를 하지 않는 시민에게 이러한 정보전달이 어려울 수 있으며, 그림 12처럼 미디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울 수 있음



\* 출처: 관악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그림 12] 관악구 통합도서관의 소셜미디어 아이콘 표시

## ■ 공공도서관 디지털 플랫폼 개선 방안

- (통합된 정보제공 창구) 서울시 도서관들이 통합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소셜미디어의 운영이 필요함. 온라인상에서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연결시키고 독서정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SNS 역시 각 도서관의 지향성을 담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시민들에게 통합된 창구를 통한 정보제공이 필요함.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역시 각 도서관과 연계하여 이용률을 높이는게 필요함
- (시스템 개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검색 알고리즘, 신착 자료 장르별 구분 개선, 통합검색 등의 시스템 개편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디지털 환경 및 이용자를 위해 반응형웹서비스 개선 및 시민의 구체적 관심사에 맞는 독서 정보 노출 및 제공이 필요함

### 3-2. 공공도서관 독서자료 제공 현황 및 개선점

- 서울시 공공도서관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일반자료 외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표 8)
- 서울도서관에서 자치구를 포함한 통합검색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치구 내 지자체 도서관은 자료 제공 시스템이 연동되고, 교육청도서관 간 연동된 구조임
- 일반 인쇄자료 수가 많은 도서관은 서울도서관(492,267권), 교육청도서관, 광진정보도서관(298,295권), 은평구립도서관(236,880권) 등임  
전자책은 문래, 대림, 선유, 여의샅강도서관(73,929권)이 많고, 그 다음으로 성동구도서관(69,872권)이 보유 수가 많음  
오디오북은 교육청도서관들과 서울도서관이 장서 수가 많으며, 개별 자치구도서관은 많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표 8]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공도서관 독서자료 현황 중 일부(2021년 기준)

자치구	도서관명	독서자료 수			
		일반(인쇄)	전자책	오디오북	전자잡지
	서울도서관	492,267	31,011	3,350	10,158
마포구	서울특별시교육청마포평생학습관	247,711	19,674	3,634	231
	마포중앙도서관	210,593	5,488	695	1,897
	마포구립서강도서관	70,235	5,488	695	1,889
	마포소금나루도서관	33,243	5,488	695	1,889
서대문구	서울특별시교육청서대문도서관	196,243	19,674	3,634	231
	서대문구립홍은도담도서관	53,975	0	0	0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166,573	9,516	819	1,844
중구	한국학생도서관	11,273	0	0	0
	가온도서관	75,295	5,637	117	0
	어울림도서관	84,221	5,637	0	0
	다산성곽도서관	7,099	5,637	0	0
	신당누리도서관	9,883	5,482	0	0

\* 출처: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2, 공공도서관 통계데이터 (<https://www.libsta.go.kr>)

## ■ 일반자료

- 도서관별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이름이 상이하나, 자치구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상호대차 서비스, 희망도서신청, 사서추천 서비스, 책바다 서비스(국립중앙도서관 상호대차), 책나래 서비스(장애인 무료 우편 지원), 책이요 서비스(임산부 등을 위한 책 배달), 스마트도서관(지하철, 근린공원에서 도서 대여/반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개선점 ① 상호대차 서비스

- 서울도서관, 자치구도서관, 교육청도서관은 시스템이 분리되어있어 자료 상호대차 서비스가 어려움. 자치구도서관은 지역 내 도서관과 연계가 되어있으나, 서울도서관과 교육청도서관은 대출 가능한 책이 없을 경우, 타 도서관에 책이 있더라도 대기를 해야 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책바다 서비스'가 있으나 공공도서관 책 대출에 따른 택배비가 추가 발생하여 실질적 이용률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개선점 ② 스마트도서관 이용

- 스마트도서관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른 운영 방식을 가짐. 예로 마포구 내에서도 홍대입구역은 교육청 소속 마포평생학습관, 합정역은 자치구 소속 마포중앙도서관이 운영함
- 대여 방식 경우도 운영 주체에 따라 회원인증 방법(자치구 회원증, 앱 인증 등) 차이가 있어 접근성 개선이 필요함

### 개선점 ③ 디지털 소외계층 접근성

- 디지털 자료가 아닌 일반자료 대여 시에도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해야 하고, 상호대차 등의 서비스는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신청해야 함. 이러한 이유로 사서가 디지털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고자 하여도 구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 전자책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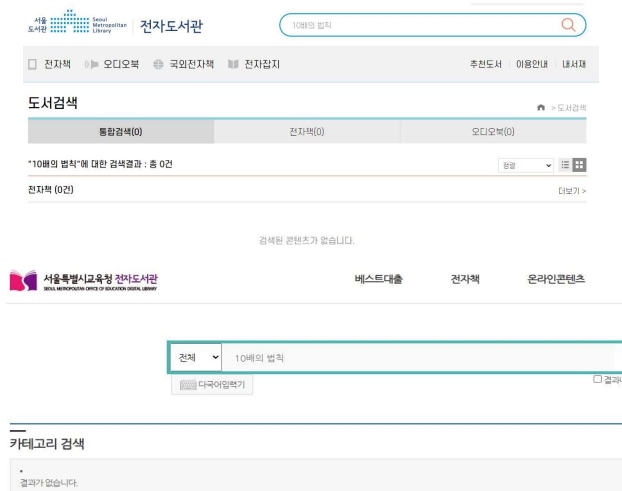
- 서울도서관은 기존 도서제공서비스 업체 6곳에서 각각 제공하던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시킴. 이에 서울 전자도서관은 독서콘텐츠를 통합뷰어로 제공함
- 교육청도서관은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책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북큐브, YES24, 교보문고, 리브로피아 등에서 제공하는 전자책을 연계하고 있음

### 개선점 ① 전자책 검색 시스템

- 서울도서관, 자치구도서관, 교육청도서관이 각각 다른 검색 시스템을 제공하여 통합된 검색이 어려움. 그림 13과 같이 자치구도서관에서 제공 중인 책이지만, 다른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원하는 책을 찾으려면 각각 검색을 시도해야 함. 따라서 도서관 대출 예약 불균형 발생으로 시스템 연계 필요



(a) 지자체 도서관 전자책 검색 결과



(b) 타도서관과 연계되지 않는 전자책 검색 시스템

\* 출처: 서대문구도서관,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그림 13] 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자책 검색 시스템**

**개선점 ② 전자책 이용 프로그램**

- 검색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서울도서관, 자치구도서관, 교육청도서관이 각각 다른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함. 교육청도서관의 경우 연결해주는 유통사별 전자책은 각 유통사마다 다른 프로그램의 설치가 필요함
  - ※ 서울도서관과 교육청도서관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나, 전자책을 읽으려면 프로그램 재설치 안내
- 결과적으로, 제공 도서관에 따라 각기 다른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기기 용량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디지털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오디오북 자료**

- 서울도서관 및 자치구도서관은 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청도서관은 전자책과 마찬가지로 교육청 오디오북 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운영함
- 자치구도서관 중 오디오북을 제공하지 않는 도서관이 많지만, 자치구도서관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오디오북 서비스를 제공함
- 앱 연동 관련해서는 서울도서관 경우 서울도서관 앱을 통해 오디오북 실행이 가능한 반면, 교육청도서관 앱에서는 ‘오디언도서관’ 앱 설치창으로 안내함

**개선점 ① 검색 시스템의 세분화 필요**

- 오디오북도 연계되지 않은 도서관 회원시스템으로 불편을 야기하며, 책의 장르로만 구분되어있어 책 선택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음
- 또한 자료 검색만 가능하고 시스템 검색은 불가능하여 주요 정보에 대한 가시성 증대와 검색기능의 개선이 필요함

## 개선점 ② 장애인 접근성 개선

- 시각장애인 도서 자료 대출에 아직 한계가 존재함. 국립장애인도서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등을 제공하고 있어, 장애인도서관 측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함

## ■ 원문 DB 자료

- 서울도서관은 디지털 자료실에서 DBpia, kiss(한국학술정보), 교보문고 스콜라, E-article, KRPIA, 한국학종합DB와 협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
- 교육청도서관은 자체 '학술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보고서나 저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도서관 차원에서 DBpia와 협약으로 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개선점: 학술정보 이용 접근성

-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마다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위치가 다름. 예로 '전자도서관' 하위 항목으로 제공하는 곳이 있는 반면, 하위항목 이외에서 안내하거나 학술검색 제공 칸을 찾기 어려운 곳도 있음. 또한 학술정보서비스에 대한 명칭이 제각각으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우며, 직관적으로 이용하기 쉬운 구성으로 개선 필요
- 학술정보 이용방식에 대해서는 운영 기관에 따라 홈페이지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는 곳과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여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상이하여 시민이 쉽게 접근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 필요

## ■ 기타자료

-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일반 독서자료 외에 전자잡지, 자체 간행물, 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공함. 서울도서관은 서울에 관한 각종 간행물, 학술/기술 용역 보고서, 빅데이터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교육청도서관은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교육 관련 자료 제공함. 자치구도서관 역시 개별 도서관마다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마포중앙도서관 경우 메타버스 가상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제공함

## 개선점 ① 시민 관점에서 기타자료 서비스 제공

- 개별 도서관은 각각 프레젠테이션콘텐츠, IT 특화자료 등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지만,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 활용도가 낮을 수 있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실제 시민들의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홍보나 안내 개선 필요

## 개선점 ② 전자잡지 서비스 제공 확대

- 서울도서관과 교육청도서관은 '모아진' 서비스를 통해 전자잡지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음. 하지만 자치구도서관의 경우 개별 홈페이지마다 편차가 있어 통합서비스 제공 등 개선 필요

※ 광진구립도서관은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선택적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시민이 관심

분야의 잡지를 메일로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구독 중인 잡지의 목차를 이메일로 제공하고 있지만, 타 자치구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전자잡지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

## ■ 공공도서관 독서자료 제공 개선 방안

- (국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실질적 협력) 국가도서관에서는 책바다, 책이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각 도서관의 분절적 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함  
또한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 참여/미참여 도서관이 있고, 스마트도서관은 운영 주체의 차이로 인해 독서 활성화 취지와는 다르게 책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림. 따라서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운영 시스템으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도서관 시스템 통합 및 연동) 서울 공공도서관들은 분절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독서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단순한 프로그램 통합을 넘어서, 여러 도서관의 전자책과 온라인 콘텐츠를 한 번에 검색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현실적으로 각 도서관 시스템 통합이 어려우면 서울도서관이 운용하는 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 요구됨
-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 공공도서관의 의의를 생각할 때 연령, 학력, 장애 여부 등 다양성을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추구해야 함. 지금의 자료 제공 시스템은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되어, 장애인도서관 등 기존 시스템과 연동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동일 서비스를 각기 다른 용어로 표현하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스마트, 디지털 관련 과도한 외래어 사용을 지양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함

## VI 서울시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

### 4-1. 서울시 독서 진흥 및 도서관 정책 제언

#### ■ 표준화 및 통합

##### ① 운영 규정의 표준화 추진

-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25개 자치구 소속 도서관별로 운영 규정이 달라 시민들의 서비스 격차가 심화됨. 도서 대출 연장 방식, 연체료, 희망도서(바로대출 포함) 및 예약제도 등 자료 이용 규정을 시민 편의 차원에서 표준화 추진  
※ 현재 서울시 '제2차 도서관종합계획'으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향유지표 및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로 서비스 최소기준 수립을 진행하였으며, 지표에 대한 지속적 평가 및 수정을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확대가 필요

##### ② 도서관 운영 시스템 통합

- 시민 입장의 도서관 서비스, 즉 하나의 회원증으로 서울시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자료의 대출과 반납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하여 회원 정보의 통합 및 서지 DB 통합 등 도서관 운영 시스템 통합이 필요함

- 기술적으로 통합시스템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정보화 발전 단계에서 도서관자동화시스템(LAS) → 통합도서관시스템(ILS)→ 도서관서비스플랫폼(LSP)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제안하고 있음 (표 9)
- 시스템 통합의 방안 중 하나로 데이터 공유가 가능한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각 도서관의 정보나 기능을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도서관 통합 관련 공통 기준이 있다면 통합이 용이할 것임

**[표 9] 도서관 정보화 발전 단계**

단계	주요특징	비고
업무전산화 (1980~2010)	<b>도서관 업무 중심의 정보화</b> - 업무처리의 전산화 - 데이터의 정보화 - 홈페이지 서비스 - OPAC 기반 검색	<b>도서관자동화시스템(LAS) 도입</b> (1980년대) 대학도서관 (1990년대) 공공도서관 (2000년대) 학교도서관
디지털도서관 (2010~2020년)	<b>도서관 콘텐츠 중심의 정보화</b> - 콘텐츠 관리기 도입 - 포털 기반의 서비스 제공 - 웹사이트 서비스 - 통합탐색기(Discovery Tool) 등장	<b>통합도서관관리시스템(ILS) 등장</b> - 콘텐츠 관리기/통합탐색기, 외산 S/W 활용
스마트도서관 (2020년~미래)	<b>도서관 서비스 중심의 정보화</b> -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서비스(사서, 이용자, 에이전트 등) - 데이터 분석 기반 분석 서비스 제공	<b>도서관서비스플랫폼(LSP) 등장</b> - 스마트기술 적용 - 초기단계

\* 출처 : 부산대학교. 2022.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K21세미나 발표자료

### ③ 도서관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 운영

- 현재 도서관 홈페이지마다 각기 다른 불편한 검색 알고리즘, 직관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반응형웹서비스, 장르별 정보제공 미비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함.
- 또한 스마트미디어 환경임에도 도서관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부재하고, 상호대차나 휴관일 정보 등의 정보가 서비스와 연계되지 않고 있음
- 도서관마다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의 경우도 접근성이 취약하고 이용률은 저조함
- 따라서 서울도서관 중심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통합된 정보제공 창구를 만들어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이 정보의 전달력과 운영 효과 측면에서 필요함

### ④ 도서관 용어의 통일

- 「도서관 이용 가이드북」: 도서관별 상이한 용어 사용으로 시민의 혼란 및 이용 만족도 차이 발생, 시민 모두가 알 수 있는 도서관 용어 통일 및 이용 규정 해설 개발 및 보급

## ■ 자료 이용의 활성화

### ① 독서 정보 이용의 빅데이터 구축 및 AI 기술 도입

- 도서관·독서 정보 이용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 및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 이용자를 지역/연령 등으로 유형화 및 패턴화 가능
- 현재 도서관에 상용화 수준으로 도입된 AI 기술의 경우 ‘도서추천서비스’가 있으며 이외 추가 개발 필요 기술로는 ‘이용자 자동 인식 및 무인반납’, ‘고도화된 독서 정보 추천 서비스’가 있음 (표 10)

[표 10] 차세대 도서관 서비스 기술 및 사례

스마트 기술	주요 특징	사례
도서관 출입 및 무인대출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가 별도 인증 매체(카드, 모바일기기) 없이 생체인식 등으로 출입 가능한 AIoT 기반 시스템(하이패스)</li> <li>- 이용자의 얼굴과 책을 자동 인식하여 무인 대출 및 반납 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항공과대학교 박태준학술정보관</li> <li>- SKT ALGO(Automated Library GO)</li> </ul>
도서 알림 및 안내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 추천 키오스크에 연령/성별/직업 등 입력하면 AI가 빅데이터 분석하여 도서 추천</li> <li>- 비콘(Beacon) 기술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용자 도서 대출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천도서 PUSH 알림 제공</li> <li>② 이용자 위치 파악 후 책의 위치 및 경로 안내</li> <li>③ 도서관 앱 다운로드 방문자에게 정보 및 이벤트 알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초구 도서관</li> <li>- 성균관대학교 학술정보관</li> <li>- 미국 올랜도 오렌지카운티 도서관</li> <li>- 미국 세인트존스 대학교 도서관</li> </ul>
교육/문화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R(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통해 도서관을 디지털로 투어할 수 있고, 네비게이션 기능을 접목하여 동선 안내</li> <li>- AR 기술을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접목하여 콘텐츠의 질을 높이고, 홀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한계 극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양대학교</li> <li>- 미국 Regis 대학도서관, 하버드 대학도서관, 오클라호마 도서관 등</li> <li>- 영국 런던 임페리얼칼리지</li> </ul>
도서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드론이 서가를 점검하고, 도서 위치를 공유하는 등 실시간 관리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과 사서 업무 효율성 증대</li> <li>- AI 기반 자재 관리시스템으로 지역 내 모든 도서관에 자료 반환 및 해당 도서관에서 예약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수 이순신도서관</li> <li>- 일본 후나비시시서도서관</li> <li>- 싱가포르 국립중앙도서관</li> <li>- 핀란드 헬싱키 도서관</li> </ul>

\* 출처 1. 문화체육관광부, 2020,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구축 연구  
 2. 곽우정, 2021, 도서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 이러한 기술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 도서 정보 알림 제공, 자료의 유기적 구입 및 비치 등을 통한 예산 효율화 등 시민 제공 서비스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능

### ② 공동보존서고 임대방식 추진

- 현재 서울시 공공도서관은 기본자료 소장 공간 및 열람 공간이 부족한 단계임. 장서의 포화는 장서 이용의 선순환을 어렵게 하여, 양질/신간 장서의 공급을 위해 필요
- 현재 추진되는 5개 권역별 시립공공도서관(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의 장서 보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별 도서의 물류 거점으로 확대 제안

- 또는 보관 시설(물류단지 등)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서울시-자치구간 ‘공동보존서고 설치·운영협약’을 체결하여 공동구입 및 임대료 분담이 필요함. 또한 서울시 귀중서, 파·오손자료 수선 및 복원, 접근 이용 편의성 높이기 위한 디지털화 작업 수행 제안

### ③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 스마트도서관 증설 및 코로나19 이후 상호대차 서비스 내용 및 범위가 확대됨.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시민, 취약계층으로 한정했던 택배 및 도서 배달을 확대 시행한 사례가 있음 (그림 14)
- (상호대차 통합관리 지원센터(가칭) 운영) 단순 운송 개념에서 도서관 공공물류 서비스 개념으로 인식 전환 및 상호대차 전담 인력 교육 및 양성
- (공익형 도서 배달시스템 운영)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서 대출을 신청하면 원하는 장소에 책 배달 서비스 제공

※ 본 연구 1장 설문 결과, ‘원하는 책을 원하는 곳에 배달해주는 도서관 서비스(유료)’에 대해 57.7점으로 높게 나타남



(a) 문화체육관광부 비대면 서비스 강화



(b) 부산 금정구 책배달 서비스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부산 금정구 자료

[그림 14] 상호대차 서비스 확대 사례

### ④ 스마트도서관(대출기) 확대

- 시민의 이동이 많은 지하철역 등에서 손쉽게 책을 빌려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도서관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함

※ 본 연구 1장 설문결과, 스마트도서관(대출기) 확대에 대해 응답 시민의 63.7%가 ‘필요하다’고 응답

### ■ 정책적 한계 극복

- 현행 지방 공공도서관 행정체계가 2원화(지자체/교육청)된 상황이고, 사실상 3원화 된 현실에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도서관 및 독서 진흥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 존재

※ 3원화 : ① 대표도서관(서울도서관) 직영 ② 서울시교육청도서관 22곳 직영 ③ 25개 자치구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 그간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교육청-지자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운영상황에 따른 하향 평준화, 각 도서관만의 운영기법 상실, 실질적 해결책 미흡 등의 사유가 존재했음

- 공공도서관 운영 주체(지자체/교육청/위탁단체)의 도서관 운영 철학, 지침, 기준 등이 달라 시민들이 누리는 서비스에 편차가 생겨 문화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음  
※ 문화적 불평등 : 시민 입장에서 A자치구 위탁운영 도서관의 수준 높은 인문학 프로그램을 교육청 소속 B도서관 인근 주민들은 함께 누리지 못하는 등의 불평등
- (시민을 위한 정책협의체 운영) 도서관 행정체계 이원화와 서비스의 삼원화 문제는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지만, 근본적인 도서관 및 독서 정책의 발전을 위해 필요. 따라서 '시민의 입장'에서 도서관 종사자의 직급 체계를 뛰어넘는 '시민을 위한 도서관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 (표 11)

**[표 11] 시민을 위한 정책협의체(안) 운영안**

구분	내용
도서관 경영자 위원회(가칭) 설치·운영	- 서울도서관장, 서울도서관 정책과장, 교육청 공공도서관장 등으로 구성 - 서울시 도서관 및 독서 진흥 정책 관련 중요 사항 등을 '시민의 입장'에서 심의 - 정책 일원화, 자료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예산 확보 등 추진
도서관 실무위원회(가칭) 구성·운영	-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자치구도서관의 업무 협의 및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 기구 - 각 분야별 담당자 회의를 활성화하여 대시민 정보서비스 역량 강화
도서관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sup>1)</sup>	- 도서관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 도서관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공개 모집, 정책 모니터링, 토론회 및 제안 대회 등 참여

<sup>1)</sup> 서울시 제2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추진계획에 제시되어 있으며, 향후 도서관 운영자 및 실무진까지 확대하는 운영안 제시

\* 참고 : 서울도서관, 2018,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4-2. 서울시민 독서 생활화 방안 제안

### ■ 도서관/독서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 독서 정보 알림을 희망하는 시민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도서관 이용자 및 비이용자 대상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서관/독서 정보 알림 서비스 제공 촉진  
※ 본 연구 1장 설문결과, '도서관/독서 정보 알림 서비스' 이용 의향 비율이 61.8%로 나타남

### ■ 시민의 우선순위 의견을 반영한 책/독서 관련 서비스 추진

- 서울시 도서관이 제공하는 지식정보 서비스를 시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자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서비스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도서관 운영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고 접근성이 높은 방식으로 지식정보제공 필요  
※ 본 연구 1장 설문 결과(복수응답) '인문교양 지식정보'(31.7%), '내일을 준비하는 지식정보'(31.5%), '경제 문제 해결 관련 지식정보'(23.9%), '일상생활 관련 지식정보'(21.1%), '문화생활 지식정보'(19.8%)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

### ■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도서관 서비스 확장

-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산업진흥원이 서울 지하철 일부 역사에서 모바일 기기로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80여 종의 오디오북 QR(큐알)코드 제공을 시범 운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 (그림 15)

-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하여 서울시민 누구나 지하철 내부에 전자책도서관 포스터 및 안내판에 붙은 QR코드를 모바일기기로 인식하여, 서울도서관 웹사이트와 연결되어 전자책 및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그림 15]** 지하철역 오디오북 제공 시범사업

### ■ 독서-피트니스 연계 프로그램

- 오디오북 제공 서비스 업체 설문 결과 운동 중에 오디오북을 듣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운동 효과 만족도 역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된 사례가 있음 (그림 16)
- ‘러닝-리딩 챔피언(Running-Reading Champion)(가칭)’ 프로그램 도입으로 운동 효과도 올리면서 지식과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공공도서관과 피트니스센터의 협약 및 쿠폰, 할인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협업 모델 추진 제안



\* 출처: 아시아경제(윌라 오디오북 설문 "일상 지루함 해소에 도움"):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51014215112759>

**[그림 16]** 오디오북-피트니스 연계 활동에 대한 업체 설문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 2013~2021, 국민독서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2012, 지역단위 공동보존서고 건립 타당성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도서관 통합서비스 환경 구축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2018,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2018 책의해조직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2020, 5세대 지능형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개발 및 구축 연구
- 서울도서관, 2018, 서울시민 독서문화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서울특별시, 2012, 제1차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서울특별시, 2018, 제2차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 서울특별시, 2022, 독서문화진흥 시행계획
- 부산대학교, 2022,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BK21세미나 발표자료 「스마트 공공도서관의 제안」
- 통계청, 2021, 사회조사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0, 고령자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1, 스마트미디어를 활용한 독서 생활화 방안 연구
- 곽동철, 2016,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50권, 제 1호
- 곽우정, 노영희, 2021, 도서관의 인공지능(AI) 서비스 현황 및 서비스 제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52(1), 155-178
- 나혜인, 이준영, 이병희, 최광남., 2020,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한 국가R&D API관리시스템의 운영 데이터 활용 가능성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4), 14-24.
- 「독서문화진흥법」
- 「도서관법」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2, 공공도서관 통계데이터: <https://www.libsta.go.kr>
- 서울시: <https://www.seoul.go.kr>

- 서울도서관: <https://lib.seoul.go.kr>
-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 <https://lib.sen.go.kr>
- 강북구립도서관: <https://www.gbllib.or.kr>
- 동대문구 답십리도서관: <https://www.l4d.or.kr/dsn/index.do>
- 송파구 통합도서관: <https://www.splib.or.kr/intro/index.do>
- 송파구 교육청도서관: <https://splib.sen.go.kr/splib/index.do>
- 서대문구도서관: <https://lib.sdm.or.kr/sdmlib/index.do>
- Adobe Experience Cloud(반응형 웹 디자인): <https://business.adobe.com/kr>
- 아시아경제(윌라 오디오북 설문 “일상 지루함 해소에 도움”): <https://www.asiae.co.kr>
- 한경문화(지하철에서 80여 종의 오디오북을 QR코드로 만나보세요)  
: <https://www.hankyung.com>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애플리케이션
- 리브로피아 애플리케이션

# Strategies to promote reading culture in the digital environment

## Abstract

Shin-Young, Kang

As digital media becomes more integrated into daily life, activities such as watching TV or consuming mobile phone content make up more than half of all leisure time activities, whereas reading only accounts for 1.2% (National Survey of Leisure Activities in Korea, 2021). Reading rates have been declining, with a drop of 26.7% since 2013, down to 54.7% in 2021, even in Seoul. To promote a reading culture in Seoul, a policy has been proposed based on an analysis of citizens' reading behaviors and library services.

A survey of Seoul citizens' perceptions of reading reveals that while paper books (89.3%) and e-books (78.1%) dominate reading preferences, younger age groups are more receptive to "internet-based information (such as internet searches, SNS, and YouTube)" as a form of reading compared to older age groups. Regarding changes in media consumption over the past five years, print media (books, newspapers, magazines) has decreased by an average of about 50%, whereas digital media (videos, internet searches, online newspapers) has increased by an average of about 60%.

After analyzing public library services that provide reading materials in Seoul, areas that require improvement were identified. Firstly, while libraries offer digital platforms via websites, applications, and social media, there is a disparity in the information provided based on the operating agency of the library (Seoul Metropolitan Library, Education Office Library, and Local Government Library). As a result, there is a need for integrated information and system improvements to enhance citizens' convenience. Secondly,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reading materials provided by the operating agencies for

libraries (e.g., general materials, e-books, and audiobooks). Therefore, it is essential not only to integrate the system but also to consider digital accessibility for marginalized groups and provide universal services, such as integrated library content searches.

After analyzing citizens' reading behavior and policy demand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long with an assessment of library services, a set of strategies has been proposed to promote a reading culture. In order to encourage material usage,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operational policies and systems between libraries and proactive operations. This can be done by building knowledge from big data and AI technologies. Moreover, strategies have been presented to enhance the reading environment for existing readers and broaden the reading population by facilitating greater convenience. This encompasses interlibrary services, smart libraries (lending machines), mobile libraries utilizing QR codes, and hobby-reading linkage programs.

[붙임 표] 서울시 산하기관 독서 정보제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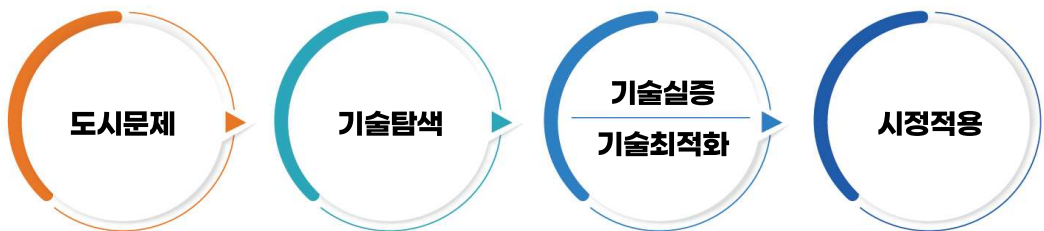
서울시 산하기관 (홈페이지 배너 순)	독서 정보제공		
	독서 정보제공 유무	서울시 도서관 링크 유무	독서 정보제공 형태
서울시립대학교	O	O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도서 정보제공
보건환경연구원	X	X	-
인재개발원	O	X	인재개발원 도서실 사이트를 통한 도서 정보제공
농업기술센터	O	X	농업과학기술도서 홈페이지 '농서남북'을 통한 도서 정보제공
서울종합방재센터	X	X	-
서울시 119 특수구조단	X	X	-
소방학교	X	X	학교 교재 등 연구 자료에 한해서만 자료실 운영
상수도 사업본부	X	X	-
한강 사업본부	X	X	-
물재생센터	X	X	-
서북병원	X	X	-
어린이병원	X	X	-
은평병원	X	X	-
서울역사박물관	O	X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발간한 도록 등 도서 정보 소개
한성백제박물관	O	X	박물관 간행물이나 연구소 발간물 등 도서 정보 소개
서울시립미술관	O	X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 관련 도서의 정보제공
체육시설관리사업소	X	X	-
서울역사편찬원	O	X	서울역사편찬원에서 만든 전자책 및 독서 이벤트 정보제공
품질시험소	X	X	-
서울대공원	O	X	서울대공원 관련 전자책 제공
동부공원녹지사업소	O	X	공원 관련 전자책 제공
서울시립과학관	X	X	-
서울식물원	O	X	식물전문도서관 사이트를 통한 도서 정보제공
서울기록원	O	X	자체 발간한 간행물 정보제공
아동복지센터	X	X	-
서울 교통공사	O	X	서울 교통공사 웹진 '공감메트로'를 통한 이벤트 정보 및 도서 정보제공
서울시설공단	X	X	시설공단 자료실에 전자도서관이 있으나, 홈페이지가 연결되지 않음
농수산식품공사	X	X	-
서울주택도시공사	O	X	임대주택 입주고객에게 제공하는 전자도서관이 별도로 존재함
서울에너지공사	X	X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X	X	-
서울의료원	X	X	-
서울연구원	O	X	서울역사편찬원에서 발간한 단행본 등 정보제공
서울산업진흥원	O	X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만든 매거진 등 전자책 제공
서울신용보증재단	X	X	-
세종문화회관	X	X	-
여성가족재단	X	X	-
서울시복지재단	O	X	서울복지교육센터 공유복지 플랫폼을 통해서 도서 정보제공
서울문화재단	O	X	산하 기관에 어떠한 도서들이 비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제공
서울시립교향악단	O	X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자체 발간물 등 도서 정보제공
서울디자인재단	X	X	-
서울장학재단	X	X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O	X	독서 이벤트, 독서 진흥 프로그램 등 정보제공

**[붙임 표] 서울시 산하기관 독서 정보제공 현황(계속)**

서울시 산하기관 (홈페이지 배너 순)	독서 정보제공		
	독서 정보제공 유무	서울시 도서관 링크 유무	독서 정보제공 형태
서울관광재단	X	X	-
서울시 50+ 재단	O	X	자체 매거진을 통한 독서 정보, 독서 프로그램 정보제공
서울 디지털재단	X	X	-
다산콜재단	O	X	독서 프로그램 정보제공
공공보건의료재단	O	X	자체 간행물 전자책으로 제공
서울기술연구원	O	X	자체 간행물 전자책으로 제공
사회서비스원	X	X	-
서울시미디어재단TBS	O	X	도서 정보를 다루는 프로그램 제작

\* 출처: 서울시 각 산하기관 홈페이지

<b>미션</b>	실용적 과학기술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행복에 기여한다						
<b>비전</b>	국내외 선진기술 시정 적용의 매개자						
<b>핵심 가치</b>	<table border="1"> <tr> <td><b>안전</b></td> <td><b>혁신</b></td> <td><b>미래</b></td> </tr> <tr> <td>첨단기술기반 안전</td> <td>데이터기반 시정혁신 지원</td> <td>4차산업혁명 디지털 도시</td> </tr> </table>	<b>안전</b>	<b>혁신</b>	<b>미래</b>	첨단기술기반 안전	데이터기반 시정혁신 지원	4차산업혁명 디지털 도시
<b>안전</b>	<b>혁신</b>	<b>미래</b>					
첨단기술기반 안전	데이터기반 시정혁신 지원	4차산업혁명 디지털 도시					





---

## 디지털 환경에 따른 시민 독서문화 활성화 방안

**발행인** 임성은

**발행일**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서울기술연구원 / [www.sit.re.kr](http://www.sit.re.kr)

**ISBN** 979-11-92456-49-2 비매품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7(상암동)  
DMC산학협력연구센터 8층

---

이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기술연구원에 속하며,  
서울특별시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